



시스코 AI 준비지수

수행 역량을 증가하는 목표 설정

대한민국



핵심 요약

인공지능의 급속한 도입은 일생일대의 기술적인 변화로 비즈니스는 물론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도입은 수십년 간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생성형 AI 분야에서 나타난 발전은 해당 도구들이 대중에게도 공개되면서 AI의 시대가 가져올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키우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설문 대상 기업 중 97%는 지난 6개월 간 회사 내부적으로 AI 기반 기술 도입의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급성은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느끼고 있으며, 가장 크게는 최고위층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CEO 및 경영진이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사회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설문 대상 기업의 84%는 AI가 향후 경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AI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보다 AI를 도입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의욕이 지나치게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코가 처음으로 조사한 **시스코 AI 준비지수**

(Cisco AI Readiness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86%는 AI 및 AI 기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준비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코 AI 준비지수는 목표 설정을 넘어서 준비상태를 전략, 인프라, 데이터, 인재, 거버넌스, 문화 등 6가지 주요 요소로 구분해 조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직의 준비수준에 따라 기업을 **선두주자**(완전한 준비), **추격자**(보통 수준의 준비), **팔로워**(부분적 준비), 그리고 **후발주자**(미준비)의 4가지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전체 설문 대상 기업을 집단별로 분류한 결과, 선두주자는 14%, 추격자는 34%, 팔로워는 48%, 그리고 후발주자는 4%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략** 항목에서 선두주자로 분류된 기업은 전체 설문 대상 기업의 약 1/3로, 6가지 항목 중 선두주자의 수가 가장 많아, 현재 경영진 및 이사회가 이 분야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전략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명확하게 정의된 AI 전략, 명확한 오너십, 영향력 측정 프로세스, 그리고 건실한 자금 흐름을 확보한 덕분으로,



특히 즉시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일부 비즈니스 영역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IT 인프라 및 사이버보안은 AI가 최우선적으로 활용되는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항목에서는 준비도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경우, 설문 대상 기업의 95%는 AI로 인해 인프라 작업량이 가중 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AI 활용 뿐만 아니라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팅 자원의 확장성과 할당, AI 워크로드에 따른 네트워크의 적응성, 반응 지연 및 통합 문제, 그리고 전력 소비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작업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준비도는 대체로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기업 내 인프라의 확장성에 대해 보통 수준 또는 부분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답했으며 보다 복잡한 AI 기술을 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요소 중에서 전력 소비 수요 증가에 대한 준비도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의 고득점이라 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설문 대상 기업의 55%는 미비한 상태이거나 어느 정도만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항목을 보면, 가장 많은 기업들이 현안으로 꼽은 이슈는 데이터 중앙집중화로, 설문 대상 기업의 81%는 회사의 데이터가 조직 전체적으로 사일로 상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및 AI 관리에 상당한 리스크를 부여하며 AI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어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중앙집중화 또는 전처리가 부재한 상태에서 AI 도구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도구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불어, 데이터가 중구난방으로 방치되면 악의적인 행위자가 취약한 부분을 노려 이용할 수 있는 공격 표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정확도와 관련해 복잡성을 한 단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AI 모델의 품질은 이용하는 데이터의 품질만큼 우수하며, 성능은 흔히 I/O라고 하는 입출력 역량에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즉, 데이터가 소스에서 목적지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I/O 역량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 생성하는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위치에 걸쳐 분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고, 이를 가급적 빠르고, 결정론적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기업은 I/O가 풍부하다고 간주되는 반면, 그 외에는 I/O가 빈약하다고 간주됩니다.

기업들이 AI 및 AI 기반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첨단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 대상 기업의 대다수가 데이터 사일로 상태임을 밝힌 데다, 회사 네트워크의 지연속도(latency)가 AI 작업부하를 감당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I/O가 여전히 빈약한 수준이며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 및 프로토콜의 구현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은 물론, 데이터 및 AI 분야의 입법 변화와 AI 편향성 등 기업체가 당면해야 하는 수많은 도전 과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설문 대상 기업 10곳 중 3곳이 현재 종합적인 AI 정책 및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으며 편향성 및 공정성을 교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춘 기업은 10곳 중 4곳에 불과했습니다.

규제 인식 및 준수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은 양상을 보여, 데이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데이터 주권*을 관리하는 기업은 설문 대상 기업의 3/4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능숙하게 수행하기란 기업에게 상당히 어려운 도전과제이지만, 일단 달성하고 나면, AI의 진정한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재 항목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인재 확보의 격차를 직면하고 있지만, 동시에 시장 내 인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다소 모순적인 면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관건은 누구나 원하는 전문 인력을 어떻게 영입하고 유지할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90%에 달했으며,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직원들을 위해 AI 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또한 거의 모든 기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을 현재 AI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기업은 그 수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두주자의 비중이 가장 적었던 항목은 **문화**로, 비즈니스 리더들이 조직에 AI를 제대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AI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임원진, 중간관리자 및 직원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변화 관리 계획을 제대로 정립해 갖추고 있는 기업은 1/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AI 도입의 시급성이 커지면서 의욕을 고치시키는 양상이 일관되게 관찰됐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의욕이 기업의 실질적인 수행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AI 대응에 필요한 여섯 가지 필수 항목별로 적절한 집중과 투자를 안배한다면, 거의 모든 기업이 AI 후발주자에서 선두주자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의욕과 실제 수행 능력의 격차는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설문 대상 기업의 61%는 1년 내로 AI 전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흐름에 뒤처져 비즈니스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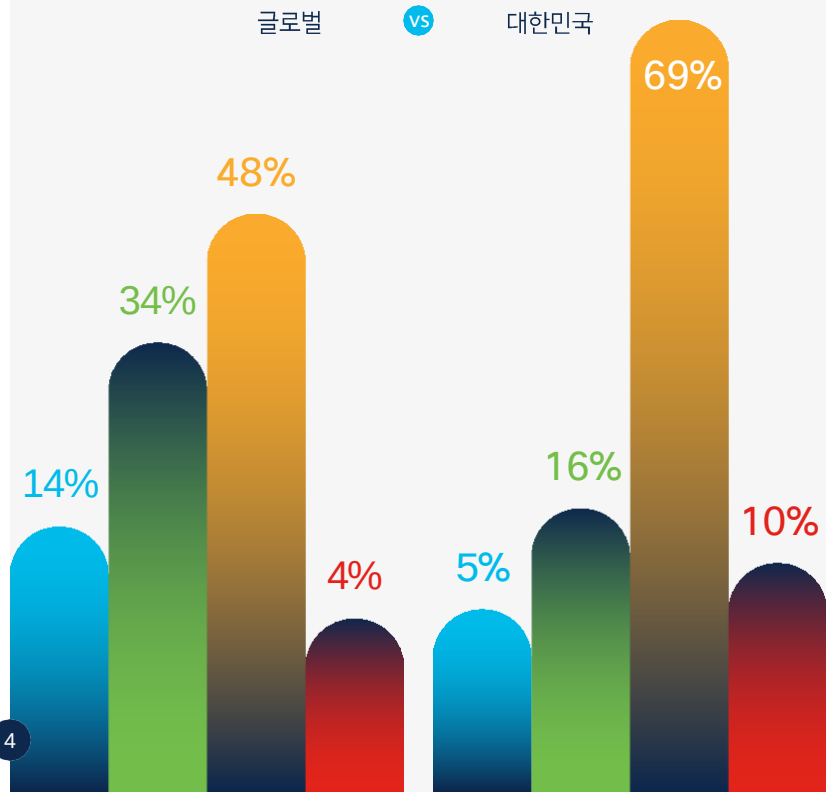
시스코는 이번 AI 준비지수가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하며 직원 및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고자 AI에 관심을 두고 있는 비즈니스 리더 및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 데이터 주권이란 해당 데이터가 생성 및/또는 저장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과 지배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국제적인 데이터 전송 및 저장이라는 맥락에서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법률 준수를 논의하는 데 있어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준비 수준

● 선두주자 ● 추격자 ● 팔로워 ● 후발주자





모든 것은 전략에서 시작한다

국내 조사 결과

AI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촉진하고자 하는 성과는 단연 시스템, 프로세스 및 운영의 효율성 강화로, 설문 대상 기업의 69%가 AI 도입의 3대 이유 중 하나로 이를 꼽았으며, 54%를 차지한 혁신 역량 강화와 43%를 차지한 고객 경험 개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략 항목에서 선두주자를 나머지 그룹과 확연하게 구분 지은 핵심 조건 중 하나는 AI 투자에 대한 자발적 의향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예산 할당 및 추가 예산 배정에 있어 AI 도입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설문 대상 기업 중 12%에 불과해, 많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AI 도입 작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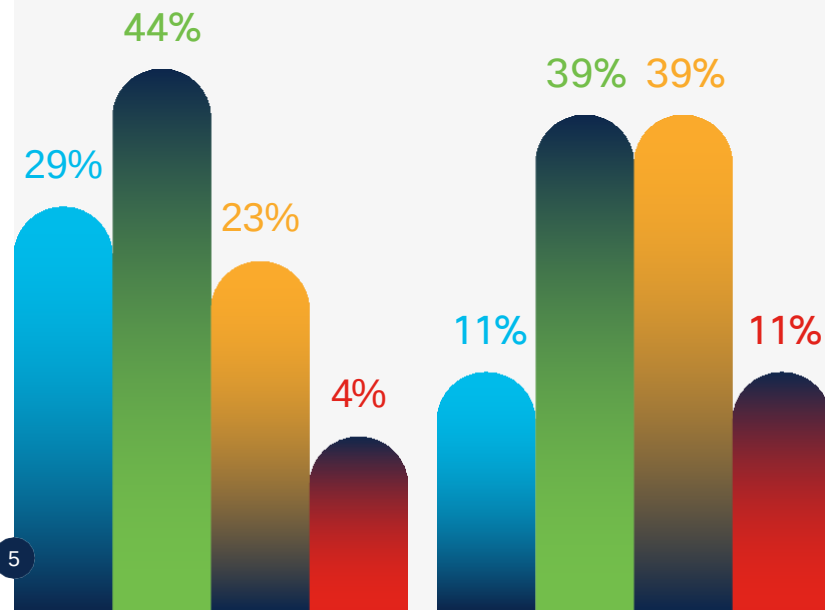
전략 대응 준비 수준

조직 전반에 걸친 모든 이니셔티브의 효과적인 실행은 AI를 포함한 잘 정의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된 것으로, 기업체의 95%는 이미 탄탄한 AI 전략을 마련했거나 현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략은 AI 준비 지수에서 가장 성숙 단계에 있는 항목으로, 한국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여, 기업체의 절반(50%) 가량은 선두주자 또는 추격자에 해당되며, 후발주자에 해당되는 비율은 11%를 기록했습니다.

● 선두주자 ● 추격자 ● 팔로워 ● 후발주자

글로벌 vs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인프라

비즈니스 리더는 전략 수립을 넘어 현재 조직이 AI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인프라 대응 준비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두주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은 6%에 불과했으며, 78%는 팔로워 혹은 후발주자로 구분되었습니다.

현재의 운영 환경에서, AI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뚜렷한 장점이 됩니다. 이 장점을 확실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IT 인프라의 확장성과 유연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확장성이 있는 아키텍처는 수요 증가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해 성장이 가능하고, 유연성이 있는 아키텍처는 대규모 혼란 없이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문 대상 기업의 대다수(74%)는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의 확장성이 보통 또는 제한적이고 복잡한 AI 애플리케이션을 다루려면 개선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의 확장성이 높다고 한 기업은 19%를 기록했습니다.

IT 인프라의 다양한 구성 요소 중에서도, 88%는 향후 AI 워크로드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센터 GPU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인프라 대응 준비의 부족함이 더욱 두드러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입출력(I/O) 역량이 빈약한 수준이라 이것이 AI 또는 AI 기반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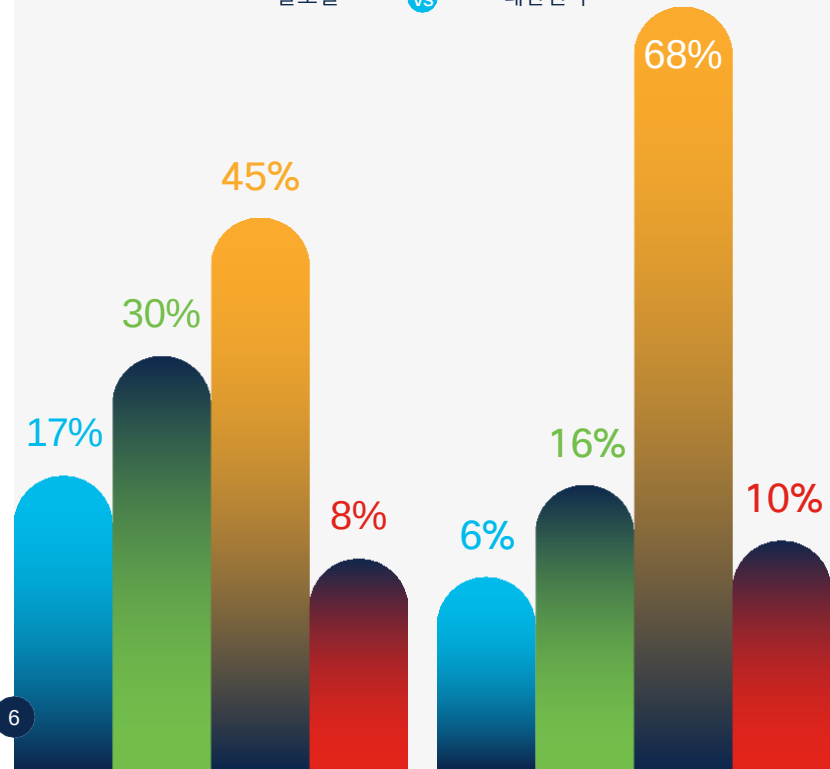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기업들이 AI 도입과 함께 나타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보호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설문 대상 기업의 85%는 AI 모델에 대한 공격을 감지하고 이를 막아내는 대응 준비 수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한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업은 물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AI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은 상당 부분 인프라에 의해 결정되고, 전 세계적으로 설문 대상 기업의 95%는 AI로 인해 IT 인프라의 작업부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AI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AI 솔루션이 대규모로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 대응 준비 수준

● 선두주자 ● 추격자 ● 팔로워 ● 후발주자

글로벌 vs 대한민국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와 AI 애플리케이션 및 전반적인 데이터 전략은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으며, 비즈니스 리더들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설문 대상 기업 중 52%는 복잡한 AI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석 도구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분석 도구가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 소스 및 AI 플랫폼과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설문 대상 기업의 93%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은 현재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 대상 기업의 44%는 보유하고 있는 분석 도구가 전혀 통합되지 않은 상태(7%)이거나 일부 통합된 상태(37%)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대응 준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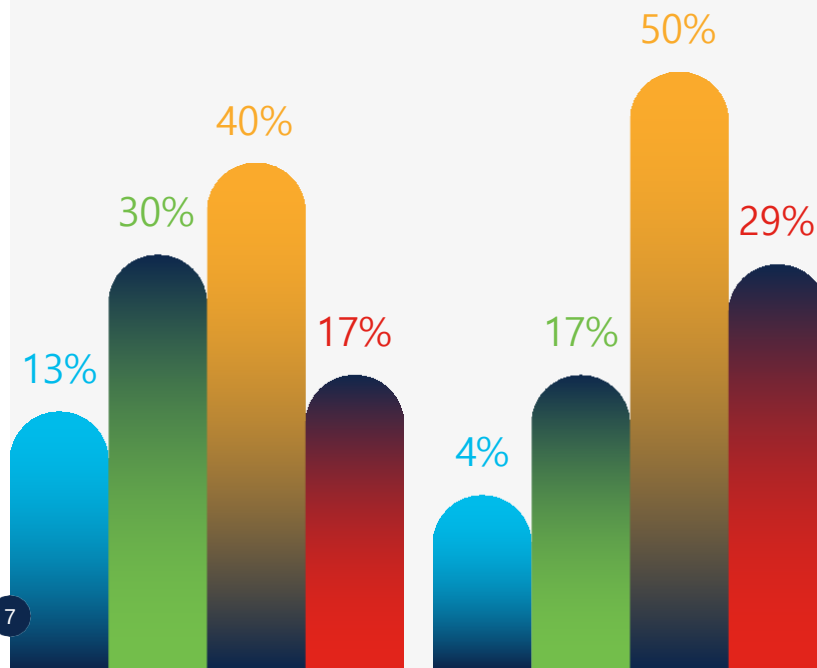
데이터가 AI 운영에 필요한 중추이자 생명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데이터 항목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업들이 후발주자(29%)로 분류됐으며, 50%는 팔로워에 해당했습니다.

데이터가 각기 다른 영역,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해, 많은 기업에서 AI의 실질적인 잠재력을 제대로 펼쳐내기 위해 강력한 데이터 전략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갈수록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다양하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는 AI 알고리즘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패턴을 파악하고, 이상 징후를 인식하며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도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문 대상 기업의 93%가 조직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사일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 이 분야에선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선두주자 ● 추격자 ● 팔로워 ● 후발주자

글로벌 vs 대한민국





또한, 47%는 데이터 편향성을 감지할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해 편향성이 상당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설문 대상 기업의 40%는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고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감지되더라도 체계적인 교정 메커니즘이 부족하거나 공식적으로 이를 개선할 프로세스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 리스크로, 한국의 경우, 설문 대상 기업의 46%는 데이터 보관 및 활용이 국내 데이터 주권 요건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고 정교한 절차를 마련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AI 거버넌스 대응 준비 측면에서는 데이터 유출 또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상황을 해결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기업이 가졌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데이터 유출 또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의 사건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검증되지 않은 기본적인 수준이거나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7%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리스크 거버넌스

AI는 획기적인 혜택을 보장하지만, AI를 도입하는 과정은 각종 리스크로 점철되어 있어 기업은 데이터와 AI 시스템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관장하는 강력한 정책 및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이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성장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거버넌스 대응 준비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기업의 83%는 팔로워 또는 후발주자입니다. 선두주자의 비중은 5%에 불과하며, 추격자는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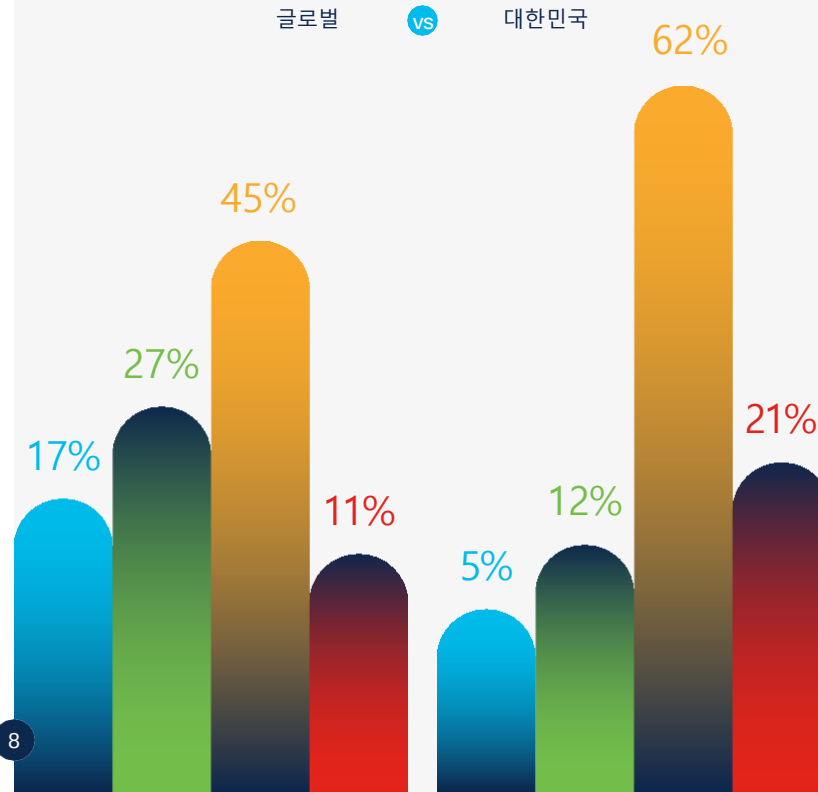
설문 대상 기업의 9%만이 고도로 종합적인 AI 정책과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으며, 42%는 정책 및 프로토콜이 보통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거버넌스 리스크 중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편향성으로, 기업의 47%는 AI를 위해 사용 중인 데이터의 잠재적인 편향성 및 공정성과 관련해 이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버넌스 대응 준비 수준

● 선두주자 ● 추격자 ● 팔로워 ● 후발주자

글로벌 vs 대한민국





테크 분야 인재 확보

AI는 사람과 기술 간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의미하기에 AI 통합과 도입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대응 준비를 갖추는 데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 대상 기업의 45%는 기업의 인재 확보 수준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면, 인재 확보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불과하며, 49%는 인재 확보 수준이 부족하거나 불안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원 수가 1,500명 이상인 대기업일수록 인재 확보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았으며, 미디어/통신, 교육 및 천연자원 분야는 인재 확보와 관련한 이슈 사항이 가장 많은 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내부의 인력에서 부족한 스킬을 묻는 조사에는, 설문 대상 기업의 38%가 AI 도구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능숙함에서 가장 큰 간극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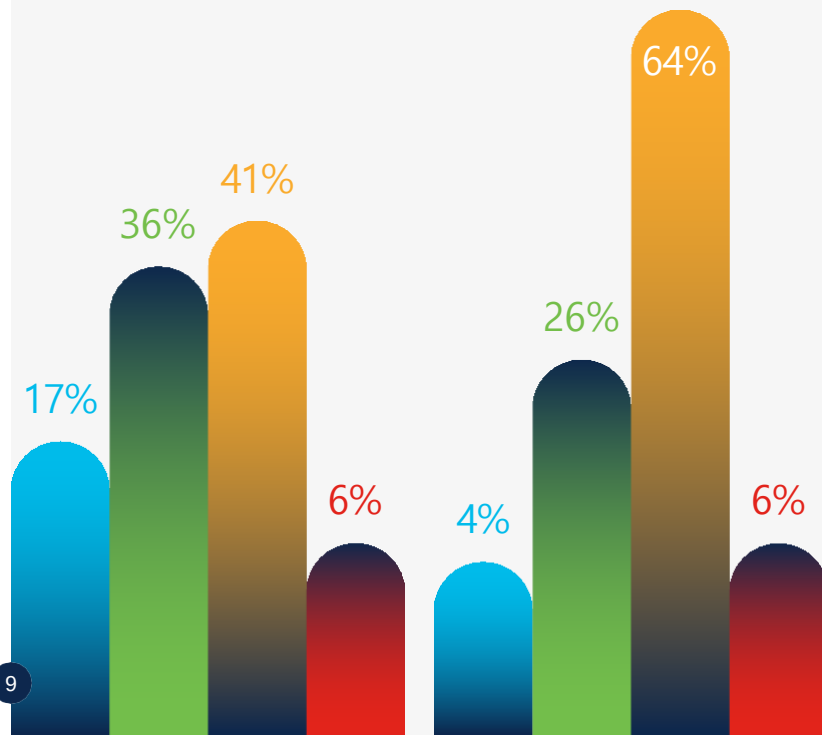
희망적인 소식은 기업들이 이러한 스킬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설문 대상 기업 중 92%는 이 부분에서 임직원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혀, AI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새로운 인재 채용과 더불어 기존 인력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재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임직원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AI 기술이 도입되면 해당 영역에서는 일부 업무 범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재 대응 준비 수준

● 선두주자 ● 추격자 ● 팔로워 ● 후발주자

글로벌 vs 대한민국





핵심은 문화

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려면, 조직 상부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사회 및 경영진이 AI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상당히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적인 자세가 높은 수준 또는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5%, 6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중간관리자의 경우, AI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가 제한적이거나 아예 전무하다는 비율이 33%를 기록해 이들의 참여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직원 레벨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더욱 심해져, 직원이 AI를 도입하려는 적극성에서 한계가 있거나 노골적으로 저항한다고 밝힌 기업의 비중이 37%를 기록했습니다.

AI 통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이 서로 다른 상황일수록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화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AI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임을 드러내듯, 15%만이 AI 도입에 대비한 종합적인 변화 관리 방안을 마련한 상태이지만,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68%)이거나 초안 단계(1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 대응 준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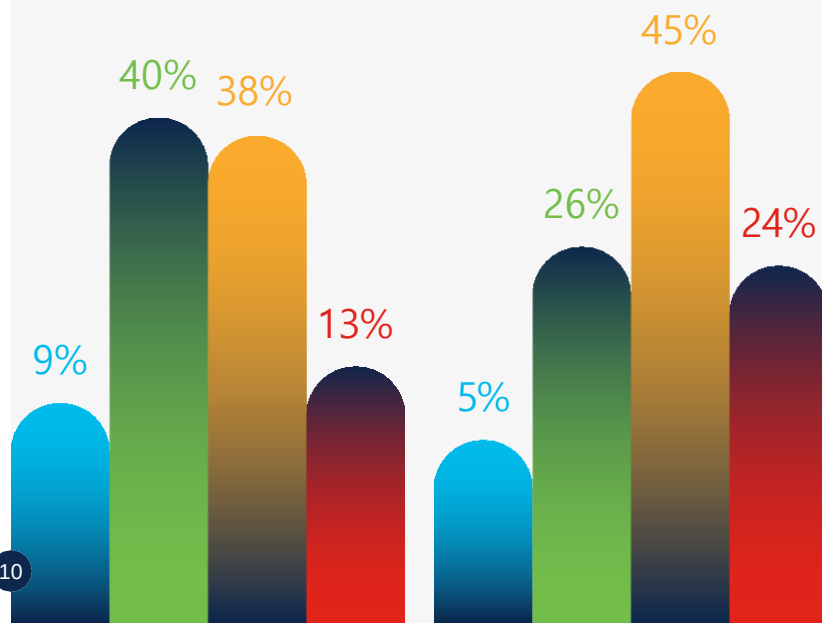
AI 도입의 확산은 대규모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고 변화에 대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화 항목에서 주요 요건을 충족해 선두주자로 분류된 비율은 5%에 불과했으며, 가장 많은 집단은 팔로워로 45%를 차지했습니다.

긍정적 측면은 동기부여가 높다는 점으로, 84%는 AI를 수용하려는 기업의 시급성이 보통 내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변화에 저항한다고 답한 비율은 1%에 불과했습니다. AI 기반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시급성이 지난 6개월 사이 기업 내부적으로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97%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선두주자 ● 추격자 ● 팔로워 ● 후발주자

글로벌 vs 대한민국





AI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

대부분의 기업이 완전한 준비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61%의 글로벌 기업은 1년 내로 AI 전략을 시행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에 상당히 부정적인 여파를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적절한 조치를 취해 AI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AI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다섯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거시적으로 생각할 것
- 2 미래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
- 3 데이터 사일로를 해결할 것
- 4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둘 것
- 5 업계의 진행 속도에 발맞춰 내부 정책 및 프로토콜을 시의적절하게 실행할 것

이번 연구 조사에 대하여

시스코 AI 준비지수는 전 세계 30개 시장에 소재한 직원 수 500명 이상의 기업에서 AI 통합 및 도입을 책임지고 있는 8,161명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더블 블라인드(이중맹검)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AI 준비 수준을 조사하고자 총 여섯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했으며, 구체적으로 **전략(15%)**, **인프라(25%)**, **데이터(20%)**, **거버넌스(15%)**, **인재(15%)**, **문화(10%)** 로 구성했습니다. 항목 내부적으로 총 49개의 지표를 사용해 대응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항목별 준비 수준은 물론, 설문 대상 기업의 전반적인 준비 수준을 점수화 했습니다.



데이터의 정리 및 분류를 거쳐 대응 수준이 결정되면, 설문 대상 기업을 '선두주자', '추격자', '팔로워', '후발주자' 네 가지 집단으로 분류했으며, 집단별 점수 기준은 왼쪽 그림의 순서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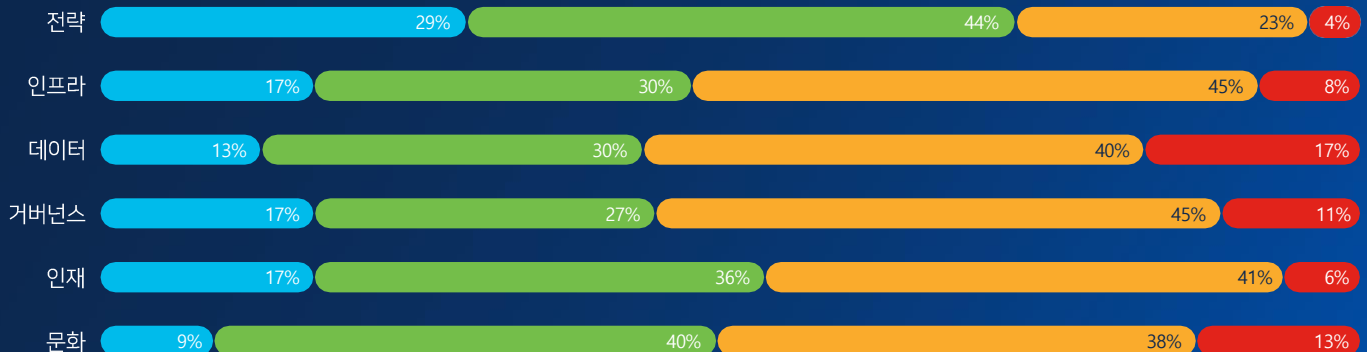
해당 점수 체계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설문 대상 기업의 14%는 선두주자의 요건을 충족했고, 34%는 추격자, 48%는 팔로워로 분류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후발주자는 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적었습니다.

준비 수준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듯, 집단별 평균 점수는 **선두주자**는 93점, **추격자**는 72점을 기록했으며, **팔로워**와 **후발주자**는 각각 48점과 2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코 AI 준비지수는 동일 영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발된 지수로, 기업의 리더들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 도구를 제공합니다.

전체 항목별 글로벌 AI 준비 수준

● 선두주자 ● 추격자 ● 팔로워 ● 후발주자



**Americas Headquarters**

Cisco Systems, Inc.
San Jose, CA

Asia Pacific Headquarters

Cisco Systems (USA) Pte. Ltd.
Singapore

Europe Headquarters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 Amsterdam
The Netherlands

Cisco has more than 200 offices worldwide. Addresses, phone numbers, and fax numbers are listed on the Cisco Website at <https://www.cisco.com/go/offices>

Cisco and the Cisco logo are trademarks of registered trademarks of Cisco and/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o view a list of Cisco trademarks, go to www.cisco.com/go/trademarks. Third-party trademarks mentioned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To use of the word partner does not imply a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Cisco and any other company. (1110R)